

근대 일본의 가부장제 시스템과 『세이토』

손 지 연
(경희대학교)

1. 서론

근대 일본의 여성해방사상은 히라쓰카 라이쵸(平塚らいてう)를 비롯한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태동하였다. 이들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자유로운 시대 분위기와 서구 여권주의의 영향을 받아 여권신장, 자아확충, 개성신장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잡지 『세이토(靑鞆)』(1911.9-1916.2)는 그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세이토』 창간에 즈음한 1910년을 전후한 시기는 한편으로는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기치로 내걸며 문명화에 진력해 온 국가중심의 메이지(明治)시대와 일선을 긋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 모색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일본의 국가 형성 이데올로기로서의 천황제 국체사상과 그것을 지탱하려는 ‘이에(家)’제도의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반된 양상의 시대 분위기는 여성해방사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학자 오코시 아이코(大越愛子)는 『세이토』의 등장이 다이쇼 시기의 ‘이에’제도 에 대한 반역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며, 1898년 메이지 민법이 시행된 이래 일본 여성들은 ‘이에’제도의 유지에 헌신하는 현모양

처주의를 수행하는 데에 길들여져 왔으나 신여성의 등장으로 근대 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위협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세이토』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에’제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중심의 젠더질서를 교란시키는 매우 반역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이토』의 또 다른 반역성으로는 후쿠다 히데코(福田英子)를 비롯한 기존의 여권론자가 여성의 참정권이나 노동권과 같은 공적권리의 획득에 분투한 것과 달리 이들 신여성은 여성의 사랑(愛)과 성(性)의 권리라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에 천착했다는 점을 들었다.¹⁾

한편 사회학자 무타 가즈에(牟田和恵)는 『전략으로서의 가족』²⁾에서 근대 일본에 있어 국가가 사회를 재편성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자녀양육, 성(섹슈얼리티)과 관련된 것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규율화 되었으며, 남녀의 성차, 성역할에 관련된 관념(젠더)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통해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재구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두 사회학자의 문제제기는 1910년대 일본 가부장제 시스템 하의 (신)여성의 ‘내면’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성을 갖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성의 글쓰기 양상은 실제 자신의 삶과 경험을 투영한 자기 고백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해방사상에 막 눈뜨기 시작한 1910년대 전후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세이토』 소설에 주목한 일본에서의 논의로는, 일본문학협회·신페미니즘 비평회의 『『세이토』를 읽는다』와 요네다 사요코 편 『『세이토』를 배우는 사람을 위하여』, 이다 유코 편저의 『『세이토』라는 장: 문학·젠더·신여성』, 이와타 나나쓰의 『문학으로서의 『세이토』』 등을 들 수 있다.³⁾ 한국의 경우는, 안노 마사히데 「일본 여성소설에 나타난 타자성 극복

-
- 1) 大越愛子, 『近代日本のジェンダー: 現代日本の思想的課題を問う』, 三一書房, 1997, pp.91-93.
 - 2) 牟田和恵, 『戦略としての家族: 近代日本の国民国家形成と女性』, 新曜社, 1996.
 - 3) 日本文学協会·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編 『『青鞥』を読む』(学藝書林, 1998), 米田佐代子·池田恵美子編 『『青鞥』を學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양상」, 이지숙 「1910년대 일본여성소설의 여성적 글쓰기」, 「1910년대 일본의 근대화와 신여성 문학」 등이 있다.⁴⁾

이 글에서는 신여성들의 주의·주장이 가장 직접적이고 압축적으로 표현된 사실, 논설류에 근거하여 근대 초 일본 여성해방사상(운동)의 주요 쟁점을 가늠해 본 후, 이것만으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미세한 내적 갈등이나 고뇌의 양상을 고백체 형식을 빌린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선행연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소설을 시야에 넣음으로써 연구의 공백을 메워 보고자 한다. 오코시 아이코와 무타 가즈에가 지적인 바와 같이 당대 여성의 반역성을 상징하는 잡지인 만콤 『세이토』의 소설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제도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 있으리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구조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2. 일본 가부장제 시스템 하의 『세이토』

- 여성해방사상의 주요 쟁점

『세이토』는 일본 최초의 여성들의 손에 의한 잡지라는 점 외에도 전통적 가부장제에 저항하면서 여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분투하는 여성해방사적 성향을 농후하게 표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장에서는 우선 『세이토』 등장을 전후한 시기의 일본 가부장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 핵심 요소인 ‘이에(家)’제도의 세부 내용을 파악해

1999), 飯田祐子編, 『『靑鞆』という場: 文学・ジェンダー・「新しい女」』(森話社, 2002), 岩田ななつ『文学としての『靑鞆』』(不二出版, 2003)

4) 『세이토』의 소설 텍스트 분석으로는, 안노 마사히데 「일본 여성소설에 나타난 타자성 극복양상」, 이지숙 「1910년대 일본여성소설의 여성적 글쓰기」, 이지숙 「1910년대 일본의 근대화와 신여성 문학」(이상, 『신여성을 만나다』, 새미, 2004)이 있으며, 젠더 관점의 연구로는 박유미 「『세이토(靑鞆)』의 ‘모성’담론」(『일어일문학』제39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8), 한·일 관련양상을 시도한 논의로는 문옥표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 비교를 위한 시론」(『신여성』, 청년사, 2003) 등이 있다.

보기로 하겠다.

유신 이후 20여 년이 흐르면서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법전을 토대로 한 민법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1890년 재산, 재산취득, 채권담보, 증거, 인사편을 공포하고 1893년 1월부터 시행을 예고했으나 일본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부딪혀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총재로 하는 법전조사회를 설치하여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편으로 재정비한 끝에 1898년 7월 마침내 메이지 민법이 탄생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에’에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 호주를 둔다. 호주는 남자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여자 호주도 인정하기는 하나 보증인이 될 수 없으며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둘째, 결혼하여 아내가 된 여성을 호주=남편의 지배 하에 둔다. 아내는 남편의 ‘이에’에 속하며 그 집안의 성씨를 따른다. 아내는 남편의 동의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자식은 부모의 강력한 친권 하에 둔다. 여성은 25세 이전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다. 셋째, 가독 상속, 유산 상속은 직계 비속의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다.⁵⁾

이와 같이 메이지 민법 하에서의 여성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웠기 때문에 결혼하여 아내가 되는 길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설령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독신으로 생활하기에는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노후 역시 유산 상속이 불가능했으므로 자식(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외에도 형법이 규정한 간통죄,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적용하도록 하여 불평등한 남녀구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었다.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근대적 외피를 입고 규범화한 ‘이에’제도가 궁극적으로는 근대 이전의 무사적 혹은 유교적 ‘이에’의 형태를 계승하여 더욱 견고하게 구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세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확립된 ‘이에’제도 역시 여성을 억압하는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무사는 군주의 ‘은(恩)’을 입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군주에게 ‘봉공(奉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전시에 몸을 바쳐 충절(忠節)을 다하는 것을 최고의 봉공으로 여겼

5) 阿部恒久·佐藤能丸, 『日本近現代女性史』, 芙蓉書房出版, 2000, pp.26-27 참조.

다. 봉공의 기회는 남성에게만 주어졌으며 ‘이에’의 호주도 남성으로 제한하였다. 여성 호주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위에게 가독을 계승하였다. 혼인은 오로지 ‘이에’의 존속을 위해서만 존재했으며 번주(藩主)는 막부에게, 가신(家臣)은 번주의 허가가 있어야만 결혼이 가능했다. 미혼 여성은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라는 ‘삼종(三從)’, 그리고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다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질투심이 많거나 나쁜 병(惡疾)에 걸린 경우도 ‘칠거(七去)’라 하여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근세 사회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무사계급 이외의 서민에게는 ‘이에’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민계층 역시 친권=부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으며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하위에 머물렀다.

이렇듯 확연한 남녀차별(억압) 구조는 근세에서 근대로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근대의 경우, 여기에 ‘국가’ 개념이 더해지면서 여성의 위치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성에게 근대 국민국가에 적합한 ‘현모양처’라는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남편을 보조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국민을 만들고, 국가사회를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⁶⁾, 다시 말해 ‘국민국가’의 ‘주체’인 남성의 ‘보조자’로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위상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근세의 그것과 변별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국가-체제-남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관리, 통합하고자 했던 ‘이에’제도의 틀이 견고하게 구축되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국가’를 초월하여 여성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성해방사상을 촉진시켰다. 바꿔 말하면 근대 일본 여성해방사상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이에’제도라는 것이 된다. 물론 히라쓰카 라이쵸를 비롯한 야마카와 기쿠에(山川 薊榮), 야마다 와카(山田わか) 등 세이토사 동인들 가운데에는 지극히 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6) 上杉真吉, 「新しい良妻賢母主義」, 『太陽』「近時之婦人問題」號, 1913. 6, p.34. 우에스기뿐만 아니라 당시 대다수의 남성 지식인들은 여성을 가정 내 ‘현모양처’의 역할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줄고 「근대 일본 미디어에 나타난 신여성 논의의 지형」(『여성문학연구』제27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을 참조 바람.

결혼, 임신, 출산에서부터 성도덕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위협성을 자각하지 못한 발언도 적지 않았지만⁷⁾, 『세이토』의 출발점이 ‘국가’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에’제도의 근본을 교란시키는 상당히 ‘반역’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라이초가 아버지의 뜻대로 친황을 절대군주로 칭양하는 관립학교(여자고등사범학교 부속고등여학교)에 입학한 해는 마침 가부장제 시스템이 메이지 민법(1898)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가동되었던 해였다. 그 이듬해에는 ‘현모양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고등여학교령’(1899)이 발표되었으며, 얼마 후 여성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치안유지법’(1900)이 시행되는 등 일본 정부의 여성억압 정책은 절정에 이르렀다.

초대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礼)에 의해 제창된 ‘국가 제일주의’의 교육방침을 그대로 수용한 ‘고등여학교령’은 여성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오로지 현모양처주의 양성에만 힘썼다. 이러한 교육에 강한 반감을 갖고 여고 시절을 반항으로 일관하던 라이초는 1903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여자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일본여자대학을 선택한 것은 이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방침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⁸⁾ 대학 시절 내내 종교, 철학, 윤리, 문학 관련 서적(특히 니체, 입센)을 탐독하고 선(禪)에 심취한다든가 모리

7) 이를 테면 ‘화류병(성병)’이나 ‘나(癩)환자’의 이력이 있는 자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결혼을 금해야 한다거나, 국력에 비해 인구가 많음을 지적하며 “무책 임하게 열등한 아이를 다산하는 대신 질 좋은 아이를 적게 낳도록 하라”는 라이초의 주장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平塚らいてう, 「母性の主張について」, 『平塚らいてう著作集 2』, 大月書店, 1983, pp.157-158.

8) 1903년(메이지36) 나루세 진조(成瀬仁蔵)에 의해 설립된 일본여자대학의 교육이념은 첫째, 여자를 인간으로서 교육할 것, 둘째, 여자를 부인으로서 교육할 것, 셋째, 여자를 국민으로서 교육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지육(智育)·덕육(德育)·체육(體育)·실업(實業) 교육에 주안을 두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가족국가관을 바탕으로 오로지 현모양처주의 교육에만 힘썼던 여타 여학교 교육방침에 비해 상당히 진보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米田佐代子·池田恵美子編, 앞의 책, p.62.

타 소헤이(森田草平)와 정사미수사건(=煤煙事件)을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 시절은 라이쵸에게 있어 근대적 자아 및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데에 더 없이 중요한 시기였다. 이 모든 라이쵸의 사상적 궤적은 잡지 『세이토』에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이토』의 간행과 더불어 신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1910년대는 근대 일본이 국체로 규정된 천황절대체제와 그 핵심인 가부장제 시스템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으로 민중의 자각 또한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여성해방을 주장하고 실행하기에도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 러일전쟁(1904-1905)을 전후한 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은 히라쓰카 라이쵸,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 등 엘리트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시대는 바야흐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들은 이쿠다 죠코(生田長江), 마바 고쵸(馬場孤蝶), 모리타 소헤이와 함께 ‘규수(閨秀)문학회’라는 문학연구회를 조직하여 문학, 철학 사상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근대적 개인, 자아에 대한 성찰 내지는 인식을 구축해 나간다. 이를 테면 다카야마 죠규(高山樗牛)가 니체를 접하면서 개인주의로 사상적 변화를 이룬 것처럼, 라이쵸 역시 이 무렵 국가, 사회와 거리를 두려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

나 스스로는 전쟁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위문대 하나 만들었던 기억조차 없습니다. 당면한 국가사회 문제보다 나 자신의 내부 문제, 그것 보다는 영원한 것에 대한 탐구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⁹⁾

세이토사 운동은 (중략) 일종의 사상적 부인운동이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사조인 개인주의, 자아주의의 세례를 받은 지식 계층의 부인, 그 중에서도 젊은 사상 부인, 문예 부인의 일군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중략) 부인의 입장에서 자아주의 내지는 자유주의 운동이며, 동시에 그것은 부인에 대한 모든 봉건적 사상, 감정의 타파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세이토사 운동 이래 부인에 대한 남자들을 비롯한 일반 사회의 태도가 일변하여, 눈

9) 平塚らいてう, 『わたくしの歩いた道』, 新評論社, 1955, p.40.

에 띄게 진지해 졌고, 부인 관련 문제와 사건이 주의 깊게 다루지게 되었으며, (중략) 세이토사는 우리 부인의 생활사(生活史) 상에 획기적인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¹⁰⁾

첫 번째 인용문은 “국가사회 문제” 보다 “나 자신의 내부 문제”에 더 고뇌했다는 라이초의 솔직한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낭만적인 이상주의의 젊은 영혼이 인간 정신의 고양을 용납하지 않는 경험주의에 만족할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다카야마 조규가 불러일으킨 니체이즘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라이초 뿐만 아니라 당시 대다수의 세이토사 동인들이 ‘개인주의’, ‘자아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 ‘자아주의’는 ‘천재주의’와 함께 『세이토』 창간에도 중요한 사상적 자원이 되었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남성 지식인들의 그것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태초에 여성은 태양이었다. 진정한 인간이었다. (중략) “숨겨진 우리의 태양을 잠재된 천재를 발현하라” (중략) 잠재된 천재를 낳는 날까지, 숨겨진 태양이 빛날 그날까지.¹¹⁾

본사는 여류문학의 발달을 꾀하며 각자 천부의 특성을 발현하게 하여 훗날 여류의 천재를 낳는 것을 목표로 한다.¹²⁾

이상은 세이토사 창간사 및 세이토사 개칙(概則)의 일부이다. 그런데 숨겨진 여성의 “천부의 특성”=천재성을 발현하게 하고 “여류문학의 발달”을 꾀한다는 세이토사의 목표는 얼마 안 있어 3권 1호(1913.1)부터 “여자의 자각을 촉구”하는 여성해방사상을 강조한 문구로 대체된다. 그 배경에는 1913년을 전후하여 일본사회의 규범 및 젠더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정적 존재로서 신여

10) 平塚らいてう, 『平塚らいてう 著作集 4』, 大月書店, 1983, pp.331-333.

11) 『靑鞆』(1-1), p.132.(『靑鞆』의 인용은 모두 1983년 후지출판(不二出版)에서 간행한 『靑鞆 復刻版』에 의함. 이하, 인용문에서는 잡지명만 표기하기로 한다.)

12) 「靑鞆社概則」第1條, 『靑鞆』(1-1), p.132.

성을 향한 비판이 절정에 달했던 당시의 여론이 작용한 듯하다.¹³⁾ 처음부터 여성해방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거센 비판을 오히려 급진적인 대응 방식으로 타개해 가고자 한 것이다.¹⁴⁾ 동시대 남성 지식인의 공통된 고민이 전통적 남녀역할, 즉 현모양처주의에 기반한 젠더 질서를 어떻게 하면 일본사회에 유지·온존시킬 수 있는가에 놓여 있었다고 하면 세이토사의 고민은 이러한 남성중심의 젠더질서를 어떻게 하면 해체 혹은 재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세이토사는 여성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동인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던 「부록 노라」(2권 1호, 1912)¹⁵⁾에 이어 「부록 신여성, 그 외 부인문제에 대하여(付録 新らしい女、其他婦人問題に就て)」(3권 1호, 1913)라는 제목의 기획물을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이 안에는 “새로움이라는 의미는 오로지 소수의 선각자만이 점유해야 하는 말”¹⁶⁾이라며 신여성으로서의 사명감을 나타낸 이토 노에(伊藤野枝)의 「신여성의 길(新らしき女の道)」, “지식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영원히 가정에 가두어 둔 지금까지의 여성과 자유롭게 지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금의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게 이지(理智)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¹⁷⁾이라며 남성과

13) 1913년을 분기점으로 한 신여성 논의의 과열 양상은 다음의 신문·잡지의 간행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초(新潮)』 「신여성(新しい女)」(1912.9)

『태양(太陽)』 「근래의 부인문제(近時之婦人問題)」(1913.6)

『중앙공론(中央公論)』 「부인문제호(婦人問題号)」(1913.7)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 「여학생(女學生)」(1913.2.28-3.24)

14) 『중앙공론』(1913.1)에 게재한 라이쵸의 「신여성(新しい女)」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얼룩진 ‘신여성’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적극 채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로의 변화를 꾀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15) 이 안에서 세이토사 동인들은 「인형의 집」 여주인공 노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닌 진지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노라를 바라보고자 했다. 라이쵸의 「노라 씨에게」를 비롯하여 가토 미도리(加藤みどり)의 「인형의 집」, 야스모치 요시코(安持研子)의 「인형의 집에 대하여」, 우에노 요(上野葉)의 「인형의 집에서 여성문제로」 등이 게재되어 있는데, 라이쵸의 논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노라의 각성을 긍정하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

16) 伊藤野枝, 「新らしき女の道」, 『靑鞆』(3-1), p.21.

17) 岩野清, 「人類として男性と女性は平等である」, 『靑鞆』(3-1), p.25.

여성의 ‘성차’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젠더의식을 피력한 이와노 기요(岩野清)의 「인류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人類として男性と女性は平等である)」, “‘신여성’은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이 나오며, 집이 빈곤해지면 효자가 나오는 것처럼 종교, 도덕이 혼란한 과도기”¹⁸⁾에 신여성의 등장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가토 미도리(加藤みどり)의 「‘신여성’에 대하여(「新らしい女」に就いて)」 등이 실려 있다.

이 기획물은 「부록 신여성, 그 외 부인문제에 대하여」(3권 2호, 1913)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다음 호에 게재되었으나 후쿠다 히데(福田英)의 「부인문제의 해결(婦人問題の解決)」이라는 글이 문제가 되어 정부로부터 발매금지 처분을 받는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공산제의 실행이 부인해방의 가장 마지막 열쇠”이며 “공산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모든 과학적 지식과 기계력을 만인평등의 복리를 위해 응용”¹⁹⁾하여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후쿠다의 공산주의적 논의방식이었다. 정부 측에서는 이를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²⁰⁾으로 판단한 것이다. 곧 가부장제 가족질서를 절대시하는 근대 일본의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바로 이 국가의 안녕질서라는 이름하에 당시 일본 여성들은 모든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해 가는 것으로 국가와의 일체감을 느끼도록 도착된 연기를 강요받았던 것이다.²¹⁾ 이로써 서구의 근대가족(핵가족)을 모방하고 여기에 가부장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는 일본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접목시킨 수많은 “미니 천황제 가족”²²⁾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근대 일본의 가부장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가족 구성원만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 있다. 이 안에서 여성은 가부장의 권위에 순종하고 스스로의 역할, 즉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부장제 시스템을 지탱하고 보완하고 유지하는 존재로 기대되어 왔

18) 加藤みどり, 「「新らしい女」に就いて」, 『靑鞆』(3-1), p.30.

19) 福田英, 「婦人問題の解決」, 『靑鞆』(3-1), pp.5-6.

20) 堀場清子, 『靑鞆の時代』, 岩波書店, 1988, p. 154.

21) 大越愛子, 앞의 책, p. 51.

22) 大越愛子, 앞의 책, p. 50.

다. 그러나 (신)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일본 가부장제 시스템 하에서 세이토사 동인들이 어떤 주장을 피력했는지 사실, 논설류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소설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일본 가부장제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갔을까? 그들은 과연 ‘반역’적인 것만으로 일관했을까? 아니면 부분적이거나 ‘타협’을 모색했을까? 그것도 아니면 ‘굴복’하고 ‘순응’했을까?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인 소설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근대 일본의 가부장제 시스템 하에 놓인 여성의 현실(내면)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보고자 한다.

3. 『세이토』 소설의 여성 재현 양상

세이토사 동인의 대다수는 여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을 갖기 위해 도쿄로 상경한 지방 출신자가 많았다. 이들 가운데는 사족이나 지주 등 지방 명문가의 딸도 있었으나 몰락하여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여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업을 갖는 것은 여성의 자아 실현 이상으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여성의 직업으로는 간호사, 산파, 기자, 전화교환원, 사무원, 점원, 타이피스트 정도였으며, 여학교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들은 교사나 신문, 잡지기자를 선호했다고 한다.²³⁾ 특히 ‘여류문인’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여성투고잡지 『여자문단(女子文壇)』(1905년 창간)과 같이 투고의 길이 열린 잡지의 인기가 높았다. 1913년 8월 『여자문단』이 폐간되자 『세이토』는 본격적인 ‘여류문인’ 배출의 장(場)이 되었다.²⁴⁾ 총 49명의 작가가 참여해 172여 편(번역 소설 제외)이나 되는 소설을 산출한 것만 보더라도 동시대 여

23) らいてう研究会編, 『『靑鞆』人物事典110人の群像』, 大修館書店, 2001, p.16.

24) 이와타 나나쓰에 의하면 여성투고잡지 『여자문단』이 양성한 작가의 대부분이 후에 『세이토』에 합류하였다고 한다. 米田佐代子・池田恵美子編, 앞의 책, p.38.

성들의 문학에 대한 열망을 짐작할 수 있다.²⁵⁾

이쿠다 하나요(生田花世)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부딪혀 그것을 붙잡아 추구하는 길은 문학 이외에는 없었다. (중략) 문학 이외에 여자가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²⁶⁾고 고백한 바와 같이 문학은 곧 여성들의 존재의 의미 그 이상이었던 듯하다.

『세이토』의 소설은 그 방대한 양만큼이나 다루고 있는 주제 역시 다양하다. 작가의 감정이 배제된 일상의 단편적인 풍경을 묘사한 소설류를 제외하고, 당대 여성의 현실 내지는 고뇌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있는 소설과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무라 도시코의 「선혈(生血)」(1-1)은 여주인공 유코(ゆうこ)가 자신의 의지로 혼전 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상대 남성과 달리 여성은 순결을 잃었다는 자책감을 느낀다는 설정을 통해 당시 성(性)에 대한 남녀의 인식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토 미도리의 「집착(執着)」(2-4)의 여주인공 히사코(久子)는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했지만 가사노동과 아이의 양육에 치여 정작 자신의 자아확립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결혼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오지마 기쿠코(尾島菊子)의 「어느 밤(ある夜)」(1-2)은 나이 삼십이 넘어 결혼하지 않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살아가는 데에 따른 심적 고뇌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남편의 죽음으로 홀로된 친구에게 재혼을 권유하는 여주인공 쓰기코(つぎ子)의 모습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여자가 독립을 이루고 살기에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선 가토 미도리의 「집착」과는 상반된 고민을 다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경험을 토대로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²⁷⁾

25) 소설 이외에도 시, 하이쿠(俳句), 감상, 소품, 단가(短歌) 등 다양한 문학 장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특히 소설 장르에 역점을 두었다. 2권 4호(1912.4)와 4권 4호(1914.4)는 「소설호」로 꾸며졌고, 5권 5호(1915.5)의 특별호에도 많은 양의 소설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세이토』소설을 단행본으로 엮어 『靑鞆小説集 第1』(東雲堂, 1913.2)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26) 生田花世, 「『靑鞆』の思い出」, 『国文学解釈と鑑賞』, 1963.9(米田佐代子·池田恵美子編, 앞의 책, p.39에서 재인용)

이 외에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품에 안고 남편의 본가를 찾은 새댁이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우에다 기미(上田君)의 「여행(旅)」(2-4),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여성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그린 간자키 쓰네(神崎恒)의 「타이피스트」(2-4), 남편의 가부장적 성향과 결혼제도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젊은 애인과의 연애감정을 과감히 표현한 아라키 이쿠코(荒木郁子)의 「편지(手紙)」(2-4), 남편의 헤어진 애인이 신혼집에 찾아오면서 시작된 아내의 내적 갈등을 그린 이와노 기요(岩野清)의 「암투(暗闘)」(2-4), 출산을 둘러싼 경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노가미 아예코의 「새 생명(新らしき命)」(4-4), 여성이 성에 눈뜨가는 과정을 묘사한 가와다 요시(川田よし)의 「붉은 나무의 싹(紅き木の芽)」(4-4), 동거 중인 여주인공 요시코(芳子)가 애인과 잠깐 떨어져 지내는 동안 자신의 생활과 결혼한 주변 여성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느낀 감정을 담담히 그린 가토 미도리의 「헤어진 후 이삼일(別れての二三日)」(4-4),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진 전 애인에게 보냈던 편지를 발견하고 강한 질투심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내용의 이토 노에의 「의혹(惑ひ)」(4-4)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부장제 시스템에 대응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그린 소설류이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1) 봉건적 인습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종 무력한 모습의 여성, (2) 봉건적 인습에 대한 부당성을 미약하게나마 인지하나 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고뇌·방황하는 여성, (3) 자아에 대한 뚜렷한 주관을 갖고 이를 주체적인 사상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7) 예컨대 가토 미도리(1888-1922)의 경우,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내와 엄마 나아가 작가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다. 나가노(長野)현 출신인 가토는 소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1906년 도쿄로 상경한 후, 담배, 화장품 등을 파는 ‘다카나카(高仲) 상점’을 운영하면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으며 그런 가운데 도쿠다 슈세이의 사시를 받아 작가로 입문하였다. 1909년 결혼했으나 실직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남편의 별거 제안, 아들의 죽음 등으로 결혼생활은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던 듯하다. らいとう研究会編, 앞의 책, pp.74-75 참조.

첫 번째 유형으로는, 가토 미도리의 「높은 창 아래(高窓の下)」(1-4)와 오카다 유키(岡田ゆき)의 「수신의 찬탄(水神の崇)」(5-5)을 들 수 있다. 이 두 소설의 여주인공의 공통점은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타파해 나가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이다.

「높은 창 아래」의 오후사(お房)는 신슈(信州)에서 태어나 열일곱 살이 되던 해에 사촌오빠와 원치 않은 결혼한다. 억압으로 얼룩졌던 결혼생활도 2년 후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 충격으로 자살을 꾀하기도 하지만,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후 도쿄로 상경하여 백작 하나다가(花田家)의 가정부로 힘든 생활을 이어간다. 어느 덧 나이 사십이 다 되었지만 오후사는 아직도 결혼한 남동생 가족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가족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후사의 집 옆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있다. 그곳을 향해 오후사는 한발 한발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네 다섯 발만 옮기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자 갑자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 싫다 집이! 자신의 집이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좋아하게 될 것 같지 않다. 남동생의 얼굴, 그리고 (올케) 오나쓰의 얼굴을 오후사는 생각만으로도 웬지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덮쳐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눈을 감고 어떻게 해서든 그 나쁜 환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²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오후사에게 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집이 싫다는 오후사의 절규 안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과 이혼을 강요당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신을 옥죄어 오는 남동생 부부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다. 이 소설의 분위기는 눈물, 자살, 정신병원, 괴물, 나쁜 환영 등의 용어가 상징하듯 암울하고 부정적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높은 창’은 ‘이에’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하며, 그 ‘아래(下)’에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함으로써 ‘이에’제도에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소설은 “그 후로도 변함없이 남동생의

28) 加藤みどり, 「高窓の下」, 『靑鞆』(1-4), p.98.

집을 출입하면서 하나다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고 있다.”²⁹⁾라는 결말을 통해 오후사가 여전히 봉건적인 인습에 종속된 삶을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수신의 찬탄」의 오사다(お貞)는 홋카이도(北海道) 부농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다. 심지어 남편이 며칠 간 연락도 없이 외박을 일삼다가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 와도 최선을 다해 그들을 수발한다. 바로 그날 술이 부족하다는 남편의 말에 이웃집에 술을 빌리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물을 발견하고 몸을 던진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으나 “불면증과 심신쇠약인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 발광한 것”³⁰⁾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나는 좋은 곳으로 갈거예요, 꽃이 피어있는 곳 말이에요. 하하하하 좋은 곳.”³¹⁾이라는 말만 되뇌이는 오사다. 오사다 역시 앞서의 오후사와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거나 치료 중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한 불합리한 ‘이에’제도로부터 탈출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보이지 않으며,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사회와 완벽하게 격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유사하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아라키 이쿠코(荒木郁子)의 「미치코(道子)」(1-3), 이토 노에(伊藤野枝)의 「제멋대로(わがまま)」(3-12), 가와다 요시(川田よし)의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脱れられぬ人)」(4-1)의 여주인공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봉건적 사회제도와 관습, 도덕, 규율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에 순종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 억압의 근원이자 가부장제의 상징인 ‘이에=집’을 떠나는 ‘가출’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미치코」의 여주인공 미치코는 “자존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익숙한 요코하마(横浜)보다 도쿄(東京)라는 넓은 곳을 동경”³²⁾하는 외향적 성

29) 加藤みどり, 위의 책, p.118.

30) 岡田ゆき, 「水神の祟」, 『靑鞆』(5-5), p.176.

31) 岡田ゆき, 위의 책, p.177.

32) 荒木郁子, 「道子」, 『靑鞆』(1-3), p.31.

향의 인물이다. 앞서 보았던 오후사나 오사다의 정체된 모습과 대비를 이루며 특히 가족(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오후사와 달리 자신의 의지로 집을 나왔다는 점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그녀의 첫 번째 가출은 프랑스인 조셉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번째 가출은 조셉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아사쿠사에 있는 숙모의 집에서 머물며 공장에서 일하던 중 가난한 삶이 싫어 “어떤 남자”와 집을 나간다. 그러나 그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않아 깨지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유부남인 시노다(篠田)와 동거생활에 들어간다. 그와 자유연애를 만끽하던 미치코는 문득 자신의 삶이 엇나가고 있음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일종의 정신병자” “피곤에 찌든 자신의 모습”³³⁾에서 발견한다. 첫 번째 가출 상대였던 조셉의 곁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곳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은 미치코의 기나긴 가출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그날 밤은 어쨌든 조셉의 집에 머물렀다. 다음 날 미치코는 새롭게 개정된 돈 다섯 장을 오비에 대충 구겨 넣고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으리라.”라며 조소하듯 다짐하며 작은 철제문을 빠져 나왔다.³⁴⁾

미치코의 잦은 ‘가출’은 ‘이에=집’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제에 굴복하지 않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미치코=道子’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소설의 여주인공은 자아에 대한 확고한 주관을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길 위를 떠돌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한다.

「제멋대로」는 도쿄에 있는 여학교를 졸업하고 하카타의 본가로 귀향하는 여주인공 도시코(登志子)의 심리를 묘사한 소설이다. 18세가 된 도시코는 숙부의 책략으로 원치 않는 “저급한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금이라도 경제적 독립만 가능하다면 숙부와 싸워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지만 현실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탓에 돈만 밝히는 숙부의 의지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도쿄를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 입맞춤과 포옹

33) 荒木郁子, 위의 책, p.34.

34) 荒木郁子, 위의 책, p.37.

을 해주던 남자의 모습이 눈에 밝히지만 그것도 잠시, 하카타(博多)역에 도착하니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약혼자 나가타(永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한 도시코는 잠이 온다는 핑계로 자리에 누워 눈물을 삼킨다.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단지 눈물만 흐른다. 마음을 비우니 눈물이 흐른다, 피곤에 지친 공허한 마음은 어느덧 흐르는 자신의 눈물을 응시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³⁵⁾

인용문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결혼을 거절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여주인공 도시코의 고뇌가 잘 표현되어 있다. 도시코의 경우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결혼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이를 주체적인 행동으로 옹지 못하고 감정적 호소로 일관하고 있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앞선 소설의 미치코가 갖는 한계와는 또 다른 측면을 노정하는데, 즉 여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임에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자아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과연 경제적 독립만으로 '이예'제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여주인공 오요(お葉)를 통해 살펴보자.

오요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성공한다. 가난하지만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남편 덕분에 결혼 후에도 소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없는 친정과 가난한 시댁에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은 오요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때마침 학교에 안 좋은 일이 생겨 사직하고 싶지만 오요는 일을 그만 둘 수 없어 괴로워한다.

차가운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직, 가출,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도 생각해 봤다. (중략) 내일, 일요일이니 조금 더 침착하게 써 보자. 아, 역시 나는 내 상황을 어찌지 못한다. 슬픈 수인(囚人)인 것이다.³⁶⁾

35) 伊藤野枝, 「わがまま」, 『青鞥』(3-12), p.67.

오요의 경우 자신의 선택으로 결혼하고 경제적 능력도 갖추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견고한 ‘이에’제도의 틀 안에 막혀 돌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에서나 결혼생활에서나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여주인공 오요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당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직, 가출, 이혼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떠올리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고뇌하는 모습은 앞서 언급한 가토 미도리의 「집착」이나 오지마 기쿠코의 「어느 밤」의 여주인공들과 닮아 있다.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오요는 자신을 억압하는 ‘이에’로부터 탈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슬픈 수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세이토』 소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이다. 다시 말해 봉건적 인습, 도덕, 규율에 대한 부당성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 내지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고뇌·방황하는 여성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한 여주인공의 경우는 자아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고 이를 표출하는 방식이 두 번째 여성 유형에 비해 확실하며 자신감이 있다. 무엇보다 세이토사의 주장이 여주인공에 투사되어 나타나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과 변별된다. 사이가 고토(齋賀琴)의 「밤기차(夜汽車)」(4-4)와 아리타 세이(有田勢伊)의 「A와 K子(AとK子)」(5-3)가 이에 해당한다.

「밤기차」의 여주인공 도시코(敏子)는 소학교를 졸업한 후 신경병에 걸려 1년을 고생하다 도쿄로 상경하여 에도가와(江戸川)에 위치한 봉재학교에서 2년 간 수학한다. 이후 S여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교육에 접하게 되면서 ‘이에’제도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여성의 자아확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한 도시코의 여성해방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존경하는 M선생님과의 만남도 “자유, 개방, 진보”로 상징되던 S여학교에 다니던 시절이다.

소설 「밤기차」는 고향의 부모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언니를 대신해 형부와 결혼하여 가계(家系)를 이어가라는 연락을 받고 무거운 마음

36) 川田よし, 「脱れられぬ人」, 『靑鞆』(4-1), p.28, p.31.

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밤기차’를 타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기차가 고향으로 다가 갈수록 부모의 원망대로 원치 않는 상대와 결혼하지 않으리라는 도시코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 진다.

애정 없는 허위의 결혼, 이제 그것이 무엇보다 깊은 죄악으로 자신의 생활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가계(家系)를 중시하는 이 나라의 가족제도도 새로운 자유의 생명을 기뻐하는 것은 이미 옛 꿈이 되었다. (중략) 관습적인 도덕, 세간의 의리 이런 것들은 도시코에게는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했다. 부모보다 이에(家)보다 인습보다 그 무엇보다 귀중한 개인의 내부 생명을 버리는 것은 도시코에게는 참기 어려운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그 보호신장(保護伸長)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의의 있는 일이며 적어도 자기 자신이 향해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다.³⁷⁾

인용문은 도시코의 자아 각성이 분명하게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어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우리나라 옛 여인들의 비참한 생애가 떠올라 마음으로부터 분개하고 세간의 인습을 저주하고 비분한 감정을 억누를 길 없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덧없이 그 영혼을 유린당했는지 (중략)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미약한 자에 지나지 않더라도 예전의 학대 받던 여자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다. 반역과괴(反逆破壞), 모든 새로운 것은 그 후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믿었다.”³⁸⁾라며 오랜 세월 일본 여성을 억압해온 남성중심의 사회질서(특히 '이에'제도)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S여학교 윤리시간에 M선생님이 소리 높여 주장하셨던 “개인으로서의 자각, 보람 있는 독립생활” “사포”(고대 그리스의 동성애자 시인), “아스파샤”(고대 이집트 여왕)³⁹⁾ 등을 떠올리며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기라도 한 것처럼 환하게 미소 짓는 도시코의 모습에서, 그녀가 더 이상 ‘이에’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의 뜻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37) 斎賀琴, 「夜汽車」, 『靑鞆』(4-4), p.119.

38) 斎賀琴, 위의 책, pp.120-121.

39) 斎賀琴, 위의 책, p.135.

집작케 한다. 무엇보다 도시코가 강조하고 있는 ‘천성(天性)’ ‘천분(天分)’ ‘내부 생명’ 등의 용어는 “혼란한 내적 생활에 조금이나마 통일을 이루어 가도록 (중략) 세이토사의 사원은, 나와 같이 젊은 사원은 모두 빠짐없이 각자의 꺼져가는 천재를 발견”⁴⁰⁾하도록 독려하는 『세이토』의 창간사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여주인공 도시코=세이토사(신여성)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노정한다.

「A와 K子」의 여주인공 K子 역시 세이토사를 대변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K子是 남자 A의 약혼 상대이다. 그런데 둘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K子是 파혼을 원하지만 A는 파혼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A가 세상의 이목을 중시하고 인습과 관습에 충실히 따르는 반면 K子是 세상의 이목이나 비난,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진리를 굽히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한다. 또한 여자에게만 정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남자 역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A와 K子是 그 성격이나 사상이 서로 다른 것처럼 정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는다. A는 인습적인 사고에서 정조는 여자에게만 요구되어야 하는 특별한 부인도덕으로 남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중략) K子是 정조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의 진리에 입각하여 극단의 결백한 주장을 피력한다. 정조의 요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성의 차이에 따라 경중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부인에게 청정한 처녀를 요구하는 남자는 자기 자신이 순결한 육체와 진실한 애정의 소유자여야 한다.⁴¹⁾

여기서 K子の 자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성(정조, 순결)에 대한 인식은 『세이토』의 여성해방사상을 충실하게 담아낸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정조·처녀성, 낙태와 피임, 매매춘 등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세이토사 내부의 논쟁이 그것인데, 이는 기존의 남성중

40) 平塚らいてう, 「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青鞜発刊に際して」, 『青鞜』(1-1), p.46, p.52.

41) 有田勢伊, 「AとK子」, 『青鞜』(5-3), p.69.

심의 성(性)질서를 해체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을 결정한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기획이었다.⁴²⁾

사실 「A와 K子」는 본격적인 소설이라기보다 작가 자신의 여성해방사상을 피력하기 위해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은 A와 K子 두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K子の 진보적 사상은 봉건적 사회제도와 관습, 도덕, 규율을 옹호하는 A의 사상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K子の 그것이 긍정적인 것, 모범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도시코나 K子和 같은 여성인물 유형은 여성의 성(性)을 오로지 ‘모성’으로 수렴해 가고 ‘현모양처주의’의 유지·강화를 위한 담론 산출에 열중해 있던 동시대 신여성 반대론자를 비롯한 수많은 보수 논객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리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이에’제도는 일본 고유의 가족제도로써 근대 이전의 봉건성의 잔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젠더 연구(특히 가족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에’가 근대 이후 메이지 정부의 철저히 의도된 계획 하에 구축된 근대적 산물이라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우에노 치즈코(上

42) 주요 논쟁은 다음과 같다. 정조논쟁으로는, 야스다 사쓰키(安田阜月)의 「사는 것과 정조와 -『反響』9월호 「먹고 사는 것과 정조」를 읽고」(4-11), 이토 노에의 「정조에 대한 잡감」(5-2), 낙태논쟁으로는, 하라다 사쓰키(原田阜月)의 소설「옥중(獄中) 여자가 남자에게」(5-6), 이토 노에의 「私信 -野上弥生様へ」(5-6), 라이쵸의 「‘개인’으로서의 생활과 ‘성(性)’으로서의 생활 간의 투쟁에 대해(노에 씨에게)」(5-8), 야마다 와카(山田わか)의 「낙태에 대해 -마쓰모토 고로 씨의 『靑鞆』의 발금금지에 대해」를 읽고」(5-8), 마카지마 요시(三ヶ島葎)의 「내가 본 생활 -라이쵸 씨의 소론(所論)을 읽고」(5-6), 매매춘논쟁으로는, 이토 노에의 「거만협량(傲慢狭量)하고 불철저한 일본부인의 공공사업에 대해」(5-11), 아오야마 기쿠에(青山菊栄)의 「일본부인의 사회사업에 대해 이토 노에 씨에게 드림」(6-1), 이토 노에의 「아오야마 기쿠에 씨에게」(6-1), 아오야마 기쿠에의 「다시 논지를 명확히 함」(6-2) 등이 전개되었다.

野千鶴子)의 말을 빌자면 “‘이에’제도는 전혀 ‘전통적’인 ‘봉건유제(封建遺制)’가 아닌, 근대화가 재편성한 가족, 다시 말해 근대가족의 일본형 버전”⁴³⁾인 것이다. 이 글 역시 ‘이에’가 근대의 창조물이라는 선행연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일본 가부장제 시스템 하의 여성 주체의 ‘내면’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근대 일본의 가부장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가족 구성원만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 있다. 이 안에서 여성은 가부장의 권위에 순종하고 스스로의 역할, 즉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부장제 시스템을 지탱하고 보완하고 유지하는 존재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신)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 아닌 일본 가부장제 시스템의 전면에 반기를 들고 등장한 신여성 잡지『세이토』 때문이었다.

『세이토』의 주의·주장은 당시로서는 분명 급진적이고 반역적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세이토』에 게재된 다양한 주제의 「부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부록 노라」(2-1)에 이어 「부록 마그다」(2-6), 「부록 신여성, 그 외 부인문제에 대하여」(3-1), (3-2)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하였고, 이 가운데 3권 2호의 경우 몇몇 글이 문제가 되어 발매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록 연애와 도덕」(3-5), 「부록 부인해방의 비극」(3-8), 「부록 여성 간의 동성연애」(4-4) 등 여성해방문제에서부터 연애와 성, 나아가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섹슈얼리티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2장 「일본 가부장제 시스템 하의 『세이토』-여성해방사상의 주요 쟁점」에서는 이상의 「부록」에 실린 글을 중심으로 근대 초 일본 여성해방사상(운동)의 주요 쟁점을 가늠해 보고, 이들의 주장이 ‘이에’제도와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또 하나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 장르에서는 반드시 반역적인 것만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았다. 3장 『세이토』 소설의 여성 재현 양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설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은 일본 가부장제 시스템에 대응하는 다양한

43) 上野千鶴子, 『近代家族の成立と終焉』, 岩波書店, 1995, p.75.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를테면 이것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불합리한 ‘이에’제도로부터 탈출하기보다 자신을 억압하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사회와 완벽하게 격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여성 유형, 둘째, 봉건적 인습, 도덕, 규율에 대한 부당성을 인지하면서도 그 극복방안 내지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 방황하는 여성 유형, 셋째, 자아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고 이를 주체적인 사상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여성 유형이 그것이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여주인공의 사상은 『세이토』가 추구한 여성해방 인식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데, 이는 동시대 (남성중심) 문학과 달리 소설이라는 형식 혹은 문학이라는 장르가 그녀들에게 특권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며, 여성의 글쓰기 양상은 젠더 인식과 무엇보다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노정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이 『세이토』라는 잡지는 결코 정연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여성 작가의 각기 다른 욕망이 서로 뒤엉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당대의 복잡한 상황(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세이토』만큼 명확하게 보여 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주제어

근대 일본, 가부장제 시스템, 이에제도, 세이토, 히라쓰카 라이초

❖ 참고 문헌

1. 기초자료

『靑鞆 復刻版』, 不二出版, 1983.

平塚らいてう, 「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靑鞆発刊に際して」, 『靑鞆』(1-1)

- 田村俊子, 「生血」, 『青鞥』(1-1)
伊藤野枝, 「新らしき女の道」, 『青鞥』(3-1)
_____, 「わがまま」, 『青鞥』(3-12)
_____, 「惑ひ」, 『青鞥』(4-4)
加藤みどり, 「高窓の下」, 『青鞥』(1-4)
_____, 「執着」, 『青鞥』(2-4)
_____, 「別れての二三日」, 『青鞥』(4-4)
_____, 「新らしい女」に就いて」, 『青鞥』(3-1)
尾島菊子, 「ある夜」, 『青鞥』(1-2)
岡田ゆき, 「水神の祟」, 『青鞥』(5-5)
荒木郁子, 「道子」, 『青鞥』(1-3)
_____, 「手紙」, 『青鞥』(2-4)
川田よし, 「脱れられぬ人」, 『青鞥』(4-1)
斎賀琴, 「夜汽車」, 『青鞥』(4-4)
有田勢伊, 「AとK子」, 『青鞥』(5-3)
上田君, 「旅」, 『青鞥』(2-4)
神崎恒, 「タイピスト」, 『青鞥』(2-4)
岩野清, 「暗闘」, 『青鞥』(2-4)
_____, 「人類として男性と女性は平等である」, 『青鞥』(3-1)
野上弥生子, 「新らしき命」, 『青鞥』(4-4)
川田よし, 「紅き木の芽」, 『青鞥』(4-4)
福田英, 「婦人問題の解決」, 『青鞥』(3-1)
上杉真吉, 「新しい良妻賢母主義」, 『太陽』「近時之婦人問題」號, 1913.6,
生田花世, 「『青鞥』の思い出」, 『国文学解釈と鑑賞』, 1963.9.

2. 참고문헌

- 平塚らいてう, 『わたくしの歩いた道』, 新評論社, 1955.
平塚らいてう, 『平塚らいてう著作集 4』, 大月書店, 1983.
上野千鶴子, 『近代家族の成立と終焉』, 岩波書店, 1995.
牟田和恵, 『戦略としての家族: 近代日本の国民国家形成と女性』, 新曜社,
1996.
大越愛子, 『近代日本のジェンダー: 現代日本の思想的課題を問う』, 三一書

房, 1997.

日本文學協會・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編, 『『青鞥』を読む』, 学藝書林, 1998.

米田佐代子・池田恵美子編, 『『青鞥』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1999.

らいてう研究会, 『『青鞥』人物事典110人の群像』, 大修館書店, 2001.

阿部恒久・佐藤能丸, 『日本近現代女性史』, 芙蓉書房出版, 2000.

❖ ABSTRACT

Patriarchal System and Seito of Modern Japan

Son, Ji-Yeon

Until now, the ‘Ie’ system, the distinct Japanese Family system, was dominantly recognized as the vestige of former feudal system. But as the research for gender-especially the family history-gets active, various aspects showing that ‘Ie’ is the modern product developed through thoroughly intended plans of Meiji government after latter-day. According to Ueno Chizuko, ‘Ie’ system is not at all a traditional feudal system, but it rather is the family revised by modernization, in other word, it is the Japanese version of modern family. This words began with it being the study of goodwill, and recognizing that ‘Ie’ is the creation of modernization, and as well as the need to listen to the new woman’s inner voice under the Japanese patriarchal system.

The most appealing characteristic of modern Japanese patriarchal system is that the it needs only the family members who are dedicated to the ‘Nation’. With this, women were expected to submit to the authority and their roles, which are, as a wife and mother who obeys by supporting, preserving, and maintaining the patriarchal system. But as the new women themselves expressed their independence, these roles are hard to be expected. It was no other than new women’s magazine *Seito* which arose against the Japanese patriarchal system.

In this statement, careful observation was done on the novel based on tiny internal conflicts or the aspects of anguish, that could not have been illustrated enough after judging the significant issues of early modern liberalism of women based on new women’s editorials, discussions, that were illustrated most directly and compressively. Through this, it was

pointed out that *Seito* magazine is not consisted logically, and that reason for that is the female authors' different desires were tangled and it reflects the complicated situation of that period whether they were intended or not.

Overall, unlike the literatures (men-centered) of same era, the genre of literature or the novel did not put them on prerogative place, and confirmation could be made once again that the women's writing aspects are related closely with gender recognition more than anything.

Keywords

Modern Japan, patriarchal system, Ie system, Seito, Hirasuka Raicho

논문접수일: 2012. 05. 23

심사완료일: 2012. 06. 11

게재확정일: 2012. 06. 15